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1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16년 8월 28일(주일) 제1113호



2016년 여름아웃리치 결산

더 넓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398팀 9,621명 … 참가인원 1만 명 시대 앞둬
전도, 집짓기 등 예수님 바로 보여주는 사역 실시

2016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는 한 마디로 더 넓게, 더 많이, 더 풍성한 사역 현장이었다. 올해 여름아웃리치에는 398팀, 9,621명이 참가해 복음 들고 땅 끝으로 떠났다. 국내 208팀, 6,912명, 해외 190팀, 2,709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4팀 증가했고, 인원도 1,174명이나 늘었다. 아웃리치 참가인원 1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아웃리치 지역도 더 넓어졌다. 아시아 84%(159팀, 2,280명), 유라시아 6%(11팀, 159명), 미주 5%(7팀, 140명), 중앙아시아 3%(7팀, 73명), 아프리카 2%(5팀, 54명) 순이었다. 지난해 여름 아웃리치가 주로 아시아(92%)에서 실시된 것과 비교하면 지역이 훨씬 다양해졌다. 가장 많은 인원이 아웃리치를 간 국가는 중국(28팀, 360명)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인도네시아 (23팀, 318명), 캄보디아 (20팀, 241명) 순이었다.

국내 아웃리치 참가인원도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올해 아웃리치를 가장 많이 간 지역은 경기도 27%(54팀, 1,875명)였고, 그 뒤를 이어 전라도 20%(38팀, 1,382명), 충청도 19%(37팀, 1,329), 강원도 18%(38팀, 1,242명), 경상도 12%(35팀, 1,848명), 제주도 4%(7팀, 236명) 순이었다.

연령대별 아웃리치 참가 비율은 성인공동체 57%(185팀, 5,503명), 대학청년부 32%(137팀, 3,094명), 차세대 11%(67팀, 1,024명)였다. 성인공동체 아웃리치 참가인원이 전년대비 1,044명이나 증가했다.

사역도 더욱 풍성해졌다. 전도는 기본, 말벗 봉사, 미니 러브소나타, 헤비타트 집짓기, 미혼모 섬김, 음식선교, 난민선교, 탈북민선교 등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역들이 추가됐다.

/ 정현주, 김영선, 이소정 기자

세네갈 본나바 마을 아이들.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힘찬 출발!

9월 2일 '21C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세미나
9월 3일 목양대회 오후 5시 30분 서빙고 본당

온누리공동체가 하반기를 힘차게 출발한다. 포문은 9월 2일 오전 10시 서빙고 본당에서 막 오르는 '21C 순례자의 신앙, 영성, 메시지' 세미나가 연다. 〈천로역정〉의 작가 존 번연과 스펄전 연구의 권위자 피터 모든 교수(런던스펄전대학 교수),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 이재훈 담임목사가 강의한다.

9월 3일 오후 5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는 목양대회가 개최된다. 교역자, 장로, 권사, 총무, 순장, 다락방장, 대학청년부MC, 차세대 코치(총무) 등 리더십들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차세대와 대학청년부의 상황과 신앙전수를 위한 비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주민 위한 집회 봉사자 모집

온누리M미션, '러스타', 'HARVEST 2016' 개최

온누리M미션이 '제1회 러스타'와 'HARVEST 2016' 집회를 앞두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1회 러스타는 러시아 언어권 유학생들을 위한 부흥집회다.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막 오른다. 어린이사역, 중보기도, 주방에서 섬길 봉사자 20명을 모집하고 있다.

'HARVEST 2016'은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예배 지원, 주방, 안내접수, 간식, 행사 진행, 어린이사역, 사진촬영, 영상편집, 셔틀운행, 의료, 행사장 정리 등을 섬겨줄 봉사자 150명이 필요하다.

문의: 010-3016-9787(러스타)
010-3937-3927(하베스트)
후원: 하나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 정현주 기자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시니어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서빙고는 9월 7일 오후 2시 두란노홀, 양재는 9월 21일 오전 11시 1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시니어 아카데미는 65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개강일이나 주일 통합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2-3215-3533
02-570-7438

기획_ 2016 여름아웃리치 결산 4-5면 르포_ 청진기 들고 땅 끝까지 CMN 의료봉사 현장 6-7면 대학청년부_ 한류와 복음, 이보다 좋을 순 없다 8면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2

전도자가 전도자를 만나다

온누리전도학교, 섬마을로 방문전도를 다녀오다

온누리전도학교가 전남 신안군 지도읍으로 방문전도를 다녀왔다. 신안군 지도읍은 전도부인 문준경 전도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전도자가 전도자를 만나는 뜻 깊은 여행에 동행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대실마을 주민들과 김진양 성도(왼쪽에서 두번째).

지난 19일 서빙고 이천만광장에 온누리전도학교 소속 41인의 전도특공대가 모였다. 초등학교 3학년 박시후 어린이부터 70세가 넘은 이정자 권사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전도부인 문준경 전도사의 숨결이 서려있는 전남 신안군 섬마을로 방문전도를 가기 위해서다. 뜻 깊은 여행을 앞둔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특공대원들의 각오가 남달랐다. 이재화 성도는 어르신들께 선물할 돋보기 120개를, 윤혜경 집사와 전도특공대원들은 전도팔찌 400개를 만들어왔다. 김진양 성도는 이번 전도여행에 동행하고자 제주도에서 왔다.

문준경 전도사 하면 대부분 신안군 증도면을 떠올리는데, 온누리전도학교가 방문전도 여행을 간 신안군 지도읍도 문준경 전도사의 영향을 받은 곳이다.

지도읍의 인구는 4,726명인데 복음화율이 64%나 된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지도읍은 김준곤 목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김 목사의 아내 인정진 사모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인정진 사모는 1950년 10월 3일, 신안군 지도읍 지도봉리교회 뒷산에서 학생들을 주일학교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토착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했다. 지도읍은 전도열정과 순교의 아픔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곳으로 온누리전도학교 소속 41인의 전도특공대원들이 방문전도를 간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내 나이에 천국 가겠소?"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특공대는 신안군 지도읍 9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새벽부터 시작된 분주한 일정으로 지칠 법도 한데 누구하나 힘든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예수 전하는 재미와 기쁨만이 가득했다.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나라~♬"

이재화 성도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전도팔찌를 건넸다. 곁에서 취재하던 기자에게도 한 움큼 나눠주면서 지금 이 순간 전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했다. 뜨거운 전도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해 전도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이찬주 장로와 이재화 성도는 '안경 검안 사역'을 맡았다. 그 지역 어르신들의 시력을 일일이 측정해가며 돋보기 120개를 선물했다. 김재흥 집사는 매트를 깔고 침술봉사를 했고, 김진양 집사는 발마사지 봉사를 했다. 주민들은 물론 지역교회에서도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특공대를 크게 환영했다.

"아따~ 반가운 사람들 아니셔잉~! 서울서 다섯시간 차 타고 왔담시?"

특히 지도봉리교회 김정희 권사가 일행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올해 60세인 그녀가 이 마을에서 가장 젊다. 그만큼 열정도 대단하다.

대실마을 주민 대부분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있다.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혔다. 김진양 성도가 조유진 할머니(80세)께 전도팔찌를 선물하면서 예수를 소개했다.

"어머니, 이 팔찌 예쁘죠? 예수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만드신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조유진 할머니가 고개를 끄떡이며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옆에 있던 윤순예 할머니도 관심을 보였다.

"나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봤소. 예수가 누구여, 내 나이에 천국 가겠소? 혼자 살아보니까 불안하데. 오늘 밤에 갈지, 내일 밤에 갈지 어찌 알어?"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특공대들은 윤순예(80세) 할머니의 구원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 윤순예 할머니도 그 기도를 따라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특공대는 포작도에서도 전도했다. 포작도는 11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지도읍에서 배를 타고 5분 정도 더 들어가야 한다.

포작도에서 만난 장경섭, 박영희씨 부부

온누리교회 전도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포작도 이장이 바로 옆 이어도에 살고 있는 장경섭, 박영희씨 부부를 초대했다. 그들 부부는 자녀를 잃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특공대는 그들 부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품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들 부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황성모 집사가 그들 부부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겨 주자 박영희씨가 눈물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였다.

온누리전도학교 41인의 전도특공대는 지도읍 구봉동, 구심동, 구원동, 구서동, 구황금동, 구취동, 구죽곡, 구참도, 포작도까지 9개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열매로 주민 93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전도부인 문준경 전도사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답게 열매가 풍성했다. 문준경 전도사의 뜨거운 전도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는 것을 온누리전도학교 전도특공대가 증명한 현장이었다.



문준경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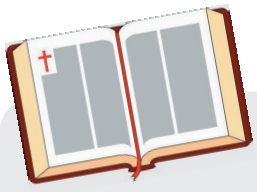
김준곤 목사

복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

전도부인 문준경 전도사는 1891년 6월 2일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1908년 17세에 증도에서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로 결혼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면서 시아버지께 한글을 배웠다. 그녀는 1927년 목포 북교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1928년 6월 세례를 받고, 1931년 서울 경성성서학원(현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다. 1935년에는 증도에 증동리교회를 개척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녔다. 그녀는 탁월한 입담꾼이었다. 찬송도 잘 부르고, 설교도 재미있게 했다. 1943년 일제는 그녀를 탐탁치 않게 여겨 고문을 일삼았다.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국 1950년 10월 5일 증동리 앞 백사장에서 공산당에 의해 수양딸 백정희 전도사를 대신해 총살당했다. 그녀의 나이 59세였다. 그녀가 천국으로 떠난 이후에도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졌다. 증도에만 11개, 신안군 일대 100개 교회가 세워졌다. 그녀가 양육한 성도 중에서 김준곤, 이만신, 정태기, 이만성, 이봉성 등 30여 명이 넘는 목회자가 나왔다. 김준곤 목사가 7살 때 문준경 전도사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다. 신안군 지도읍에 김준곤 목사의 생가와 김 목사의 아내 인정진 사모와 그의 부모의 묘가 있다. 김 목사 부부는 네 살 된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인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로 내려와 사역했다. 당시 김 목사의 고향은 공산당이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였다. 인정진 사모는 1950년 10월 3일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했다. 김준곤 목사의 부친도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다. 김준곤 목사도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구출됐다. 그러나 김준곤 목사는 아버지와 아내를 죽인 공산당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했다. 공산당 120명을 용서하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3



주일강단



이기원 목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 23:1~6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 되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 성령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주변 환경이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할 때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저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마이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환경이 성령의 내적 감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될 때 우리의 일상생활의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모한 지표와 같다. 환경이 정지되어 있는 한 기다리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환경이 열리면서 바다와 강과 사막과 바위에라도 길이 뚫릴 것이다."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요, 음성이라고 단정 지으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으로 확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모든 환경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과 확신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평강과 기쁨과 확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1~2절).

목자와 양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양과 질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더 가까이 교제하고, 더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시16:2).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인간다워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푸른 목장에 가서 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좋은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둘째,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눕는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싸우지 않아야 하고, 파리나 모기 등이 괴롭히지 않아야 하고, 배불러야 눕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목자만이 양들을 눕게 할 수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 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4~6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쉴만한 곳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일기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책의 저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류를 하지 못한 사람은 더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목자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라보고, 듣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모든 상황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도망칠 때도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으십니다. 시편에 다윗의 수많은 시와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소원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그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그의 의로움을 보셨고 이해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고통이 너무 클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함께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부유할 때도, 연약할 때도 함께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한 한나와도, 임신한 하갈과도 함께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이 있을 때도, 우상숭배자 850명과 싸울 때에도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에 상관없이 함께 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3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시고, 동굴로 인도하시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어떤 사막도, 광야도, 토굴도, 질병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지켜보셨고, 함께 하셨고, 모든 고난을 이해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만 결국 마지막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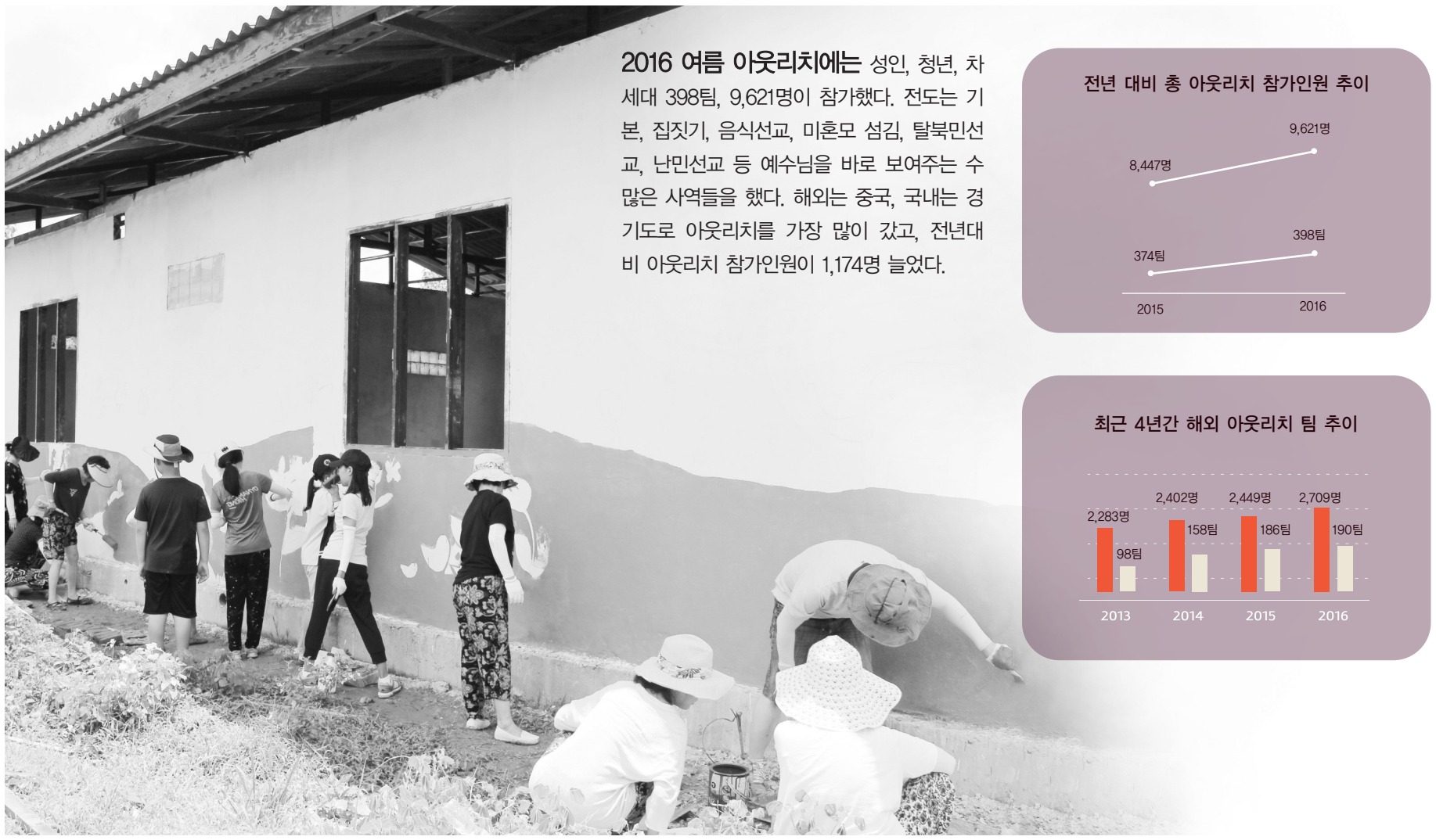
상한 맘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함께하시고, 이해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쁨으로 십자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60828-1113호-현준_2012528 -902호16면 16. 8. 26. 오후 10:04 페이지 4

2016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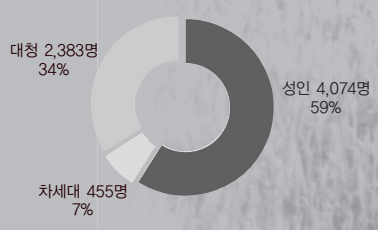


2016 여름 아웃리치에는 성인, 청년, 차세대 398팀, 9,621명이 참가했다. 전도는 기본, 집짓기, 음식선교, 미혼모 섬김, 탈북민선교, 난민선교 등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수많은 사역들을 했다. 해외는 중국, 국내는 경기도로 아웃리치를 가장 많이 갔고, 전년대비 아웃리치 참가인원이 1,174명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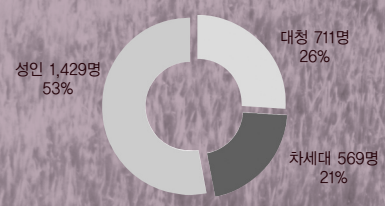
전년 대비 총 아웃리치 참가인원 추이

최근 4년간 해외 아웃리치 팀 추이

2016 국내 아웃리치 인원



2016 해외 아웃리치 인원



2016 국내 지역별 아웃리치 현황

지역	인원	팀
경상도	848명	35개팀
강원도	1,242명	38개팀
충청도	1,329명	37개팀
전라도	1,382명	38개팀
경기도	1,875명	54개팀
제주도	236명	7개팀

2016 해외 지역별 아웃리치 현황

지역	나라	팀
아프리카	4개국	5개팀
중앙아시아	4개국	7개팀
미주	1개국	7개팀
유라시아	5개국	11개팀
아시아	16개국	159개팀
중동	1개국	1개팀

20160828-1113호-현준_2012528-902호16면 16. 8. 26. 오후 10:04 페이지 5

2016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올해도 온누리의 여름은 뜨거웠다. 9,621명이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를 건넜다.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S선교사(캄보디아), 이은선 자매(여의도공동체)가 아웃리치 현장에서 보고 느낀 감상평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가정, 일터, 교회에서도

여름 아웃리치가 마무리되고 있다. 아웃리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올해는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하라(시 67:4)'를 주제로 190개 팀, 2,709명이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열방을 위로하고, 복음을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테러, 재난이 많은 상황에서도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이 아웃리치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가장 감사하다. 교회는 올해 아웃리치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위험지역은 아웃리치 대상지역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3차례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실시간으로 아웃리치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비상연락망을 운영하였다. 각 공동체와 아웃리치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다. 해마다 열방으로 흩어져 선교지 영혼들을 직접 만나고, 전도하고, 섬기고 있다. 아웃리치는 온누리교회의 선교영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통이다. 외롭게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고국에서 온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위로를 얻고,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사역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아웃리치다. 성도들은 선교현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열방을 품게 된다. 또한 아웃리치팀을 파송한 공동체가 더욱 기도하게 되고, 후원하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활력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아웃리치의 은혜다.

아웃리치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싶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아웃리치의 소중한 경험과 자료들을 보관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아웃리치팀들이 보고서, 사진, 동영상 등을 아웃리치 관리 사이트에 올려 주기를 바란다. 온누리교회의 역사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도 소중한 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다. 아웃리치의 소중한 경험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지기를 바란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도 선교적 삶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방문했던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김홍주 목사
(2000선교 본부장)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나는 50대 중반에 선교사로 파송 받았다. 캄보디아에 온지 7년 다 되어 간다. 주님께서 매 순간 인도해주심을 느끼고 있다. 내게 허락된 시간동안 '사람을 키우는'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뿐이다. 주님께서 물주시고, 거름 주시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이번 여름 우리와 함께했던 Pole2공동체 지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Pole2공동체 지체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나눠줬다. 단순히 방문해서 기도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게임도 하고, 이미용 봉사도 해주었다.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 현지인들이 너무 너무 행복해 했다. 현지교회 목사님은 "주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복음은 먹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또 한 번 듣는 시간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뜨거운 불 옆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고, 여기서는 흔히 먹을 수 없는 양식(스테이크)도 대접해 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현지인들 대부분이 생전 처음 양식을 먹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발을 씻기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눠주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선교사님과 현지인들을 위로하고 맛있는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Pole2공동체 아웃리치팀은 달랐다. 정말 특별했다.

앞으로도 Pole2공동체 지체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기도한다. 여러분이 흘린 굵은 땀방울들이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세계 열방을 품는 청년들이 계속 생기기를 기도한다.



S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

밤하늘의 별보다 아름답고 반짝이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아웃리치에 참가했다. 터덜터덜 끌려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바로 그 아웃리치에서 나는 무엇보다 값진 것을 배웠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다. 어디를 보거나, 누구를 봐도 은혜였다.

예쁜 하늘만큼이나 맑고 파란 아이들이 자신과 쏙 빼닮은 어린 동생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왔다. 우리가 준비해 간 연둣빛 성경학교 티셔츠를 갈아입혀 줄 때부터 천국잔치가 시작됐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옆에 딱 붙어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손에 간식을 쥐어주고, 살뜰히 챙기는 서너 살 많은 꼬마들이 있었다. 손짓발짓 섞어가며 "네 동생이니?"라고 물었더니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며 끄덕끄덕. 파랑반, 분홍반, 초록반, 노랑반… 반마다 키는 훌쩍 컸지만 앳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십대 청소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찬양도, 기도도, 열심이었다.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린 동생들을 챙기면서 선생님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 헌신적으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청년들을 보는 것도 귀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의료, 전도, 어린이성경학교, 요리 등의 사역을 준비해갔다. 어린이성경학교가 마무리되면 요리와 베이킹 강습을 했다. 의료팀과 전도팀은 병원에서 사역했다. 상대적으로 교회사역을 준비할 인력이 부족했다. 그래도 선교사님의 탁월한 진두지휘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청년들 덕분에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을 기대했다. 칠흑 같이 어두운 초원에서 정말 많은 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흐린 날씨 탓에 하나도 볼 수 없었다. 목사님은 "이곳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보다 아름답고, 반짝이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두가 그 별이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였다.



이은선 성도
(여의도공동체)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6

의료선교팀 CMN
아프리카 세네갈 의료봉사 현장

청진기 들고 땅 끝까지 …



세네갈로 가져간 의약품 상자들.



께르 앗산 보건소를 찾아 온 환자들과 접수팀.

치과, 소아과, 산부인과, 초등학교 검진 등 2,672명 진료
병 고치고, 마음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의료선교팀 CMN이 예수바보행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너무 아파 신음하는 지구촌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줬다.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구 반 바퀴나 되는 거리를 무릅쓰고 의료장비를 챙겨갔다. 그 정성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황홀할 만큼 아름다웠다. 병도 고치고, 마음도 치유하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모습이었다. 의료선교팀 CMN이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8박9일 동안 써내려간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세네갈은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나라다. 흔히들 축구를 즐겨하고, 우리 밥상에 오르는 갈치가 세네갈에서 주로 잡힌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 세네갈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나라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다. 수도는 다카르다. 국토의 면적은 196,722㎢로 우리나라(99,720㎢)보다 두 배 정도 넓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랬듯이 세네갈도 노예문제와 식민지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세네갈은 1859년부터 1865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1956년에는 프랑스에서 세네갈 자치정부가 수립되기도 했다. 1959년에 말리와 함께 말리연방을 수립했지만 이듬해 다시 독립했다.

세네갈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월로프어와 토속어도 쓴다. 세네갈에는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월로프족 43%, 세렐레족 15%, 풀라니족 14% 순으로 많다. 전체인구의 92%가 무슬림이고, 토속신앙 6%, 기독교가 2%에 불과하다.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CMN이 의료봉사를 실시한 곳은 본나바(Bonaba) 마을이다. 본나바마을은 작은 시골마을이다. 천연 염전 장미호수(Rac Rose)가 유명하다. 세네갈의 대표적 관광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 특징이 주민들의 삶을 오히려 궁핍하게 만들었다. 수도 다카르와 거리가 멀지 않지만 장미호수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외부와 격리되었다. 정부의 제대로 된 관심을 받지 못해 교통도 나쁘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이다.

지구 반 바퀴나 되는 거리 세네갈 본나바 마을 가는 길

의료선교팀 CMN이 본나바 마을을 사역지로 정한 이유가 있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2012년부터 본나바 마을에서 '더멋진마을(better village)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 교육, 환경, 식수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주고 있다.

본나바 마을에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시설이다. 대다수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마을에 작은 보건소가 있지만 의사가 없고, 의약품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8명의 아웃리치 팀원들은 본나바 마을에서 의료봉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나바 마을에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세네갈 본나바 마을 의료봉사는 준비하는 것부터가 보통일이 아니었다. 의약품, 검사장비, 지원물품이 가득 담긴 큼직한 플라스틱 박스가 40개가 넘었다. 의료진과 지원팀을 포함해서 인원이 28명이나 됐다. 짐을 부치고, 출국수속을 밟는 것도 일이었다. 거리도 말도 못하게 멀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지 9시간만에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세네갈행 비행기로 환승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세네갈까지 가는 직항편이 없기 때문이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데 문제가 생겼다. X-ray 장비와 치과치료 장비가 공항 직원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인 것 같다. 준비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의료봉사 장비라고 설명하고 나서야 입국을 허락 받을 수 있었다. 애써 챙겨온 장비를 세네갈로 가져가지 못하면 의료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의 연속이었다.

두바이에서 10시간을 더 날아서 드디어 세네갈 다카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NGO 더멋진세상 직원들과 선교사들이 마중을 나왔다.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사역지인 본나바 마을로 향했다.

NGO 더멋진세상의 친구라면 "모두를 환영합니다"

의료선교팀 CMN은 본나바 마을과 니야그 보건소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본나바 마을은 모래땅 위에 있다. 께르 맘나르, 께르 발라, 께르 앗산, 께르 마람뱅 등 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합쳐 5천 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 벽돌집이 대다수지만 드문드문 갈대를 엮어 지은 움막도 보였다. NGO 더멋진세상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움막집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전기는 물론 수도도 없었다. 주민들이 모래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NGO 더멋진세상의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으로 지금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니야그 보건소는 본나바 마을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었다. 주민도 많고, 전기와 수도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사역에 앞서 본나바 마을과 니야그 보건소를 둘러봤다. 그 과정에서 의료선교팀 CMN의 꼼꼼함이 돋보였다.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없는지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진료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야 NGO 더멋진세상 백원경 지부장의 안내에 따라 촌장이 거주하는 본나바 마을을 방문했다.

본나바 마을은 일종의 집성촌이다. 촌장이 마을을 관리하고 있다. 촌장을 만나 의료선교팀의 계획을 설명했다. 촌장은 "NGO 더멋진세상의 친구라면 전적으로 믿는다"면서 의료선교팀을 환영했다.

"그동안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을 받아 마을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마을사람들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봉사를 위해 마을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를 환영합니다."

허리 한 번 세울 틈도 없이 한 명이라도 더…

의료봉사 첫째 날이 밝았다. 두 팀으로 나뉜 봉사자들이 일사분란하게 흩어졌다. 께르 앗산 보건소에는 의료진(김충희 소아과, 한승훈 소아과, 박주현 산부인과, 서효민 가정의학, 정찬의 비뇨기과), 약국팀(조상은 약사, 김미란, 한인화), 접수팀(오용일, 오천병, 이보혜, 천예원)이 파견되었다. 니야그 보건소에는 의료진(김병순 정형외과, 박용원 산부인과, 심형섭 치과, 이백권 성형외과, 이선영 소아과, 임동진 소아과), 약국팀(김원준, 손여옥, 손영은, 이지원, 정유정, 한준환), 접수팀(양성민 목사, 이용경 장로, 박승영, 이유나)이 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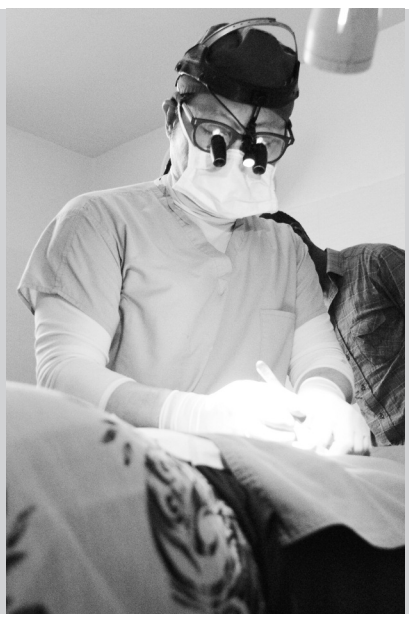
진료가 시작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께르 앗산 보건소 밖에는 이미 대기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임시로 천막을 치고, 의자를 놓고 대기 장소를 만들었다. 본나바 마을의 청년들도 의료선교팀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그들이 안내를 도맡았다.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려고 준비를 서둘렀다. 아무리 바빠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기게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7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께르 앗산 보건소를 찾은 여자아이.



수술 중인 성형외과 의사 이백권 성도.



소아과 의사 한승훈 성도가 아이를 진찰하고 있다.

해달라는 기도를 빼놓을 수는 없었다.

드디어 진료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접수팀이 환자들을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싸알라말라꿈(안녕하세요)”

접수팀은 환자들과 가까워지려고 월로프어로 인사말을 연습해갔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무척 호의적이었다. 접수팀은 성별, 나이, 혈압, 몸무게, 증상을 묻고 해당진료과 의사에게 환자를 배정하는 역할을 했다. 봉사자들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현지인이 현지어로 통역을 해주는 과정이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 의료봉사에서 의사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라고 걱정하던 찰나 오용일 씨가 유창하게 프랑스어를 구사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세네갈로 파견 나온 직원이었다. NGO 더멋진세상 소속 홍석문 목사의 소개로 이번 의료봉사에 합류했다. 좋은 일 한번 하지 않겠냐는 제안에 휴일을 반납하고 왔다.

“세네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기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의 프랑스어 실력이 뛰어난 편이 아닌데 칭찬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 진료를 시작한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환자가 줄지 않았다. 환자들이 이렇게까지 몰리는 이유가 있다. 워낙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 병원에 가 본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수도 다카르까지 가야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 병원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세네갈의 일일 평균소득은 약 2,000세파프랑(CFA)이다. 원화로 4,000원 정도다. 그런데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하면 10,000~15,000세파프랑(20,000~30,000원)이 든다. 일일 평균소득의 5배가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웬만한 통증은 참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약만 산다. 약값도 만만치 않지만 말이다.

세네갈은 약품을 생산하지 못한다. 유럽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의료선교팀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처음과 같이 끝까지 꼼꼼하게 진찰했다.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증상을 묻고 또 물어가며 진료했다.

세네갈 어린이 대부분이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오염된 모래에서 뒹굴면서 놀고, 세면용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생관념이 낮은 것도 한몫했다. NGO 더멋진세상 김영규 기술팀장은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했다.

“우물을 파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줬더니 아이들의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씻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들이 씻는 습관도 생겼고요.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던 피부질환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거에요.”

환자들이 몰려들다보니 약국도 정신이 없었다. 허리 한 번 세울 틈 없이 약을 조제하고, 복용법을 설명했다. 지원팀을 도와주던 현지인 가비가 한국 의료진들의 수고에 고개를 흔들 정도였다.

“한국 사람들이 세네갈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노력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획된 일정은 오후 6시까지였다. 그렇다고 몰려드는 환자를 그만 볼 수는 없었다. 아니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해야 했다. 약속된 시간을 넘기면서 진료를 하고도 일정이 끝나지 않았다. 숙소에서 돌아가서도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다음날 의료봉사를 준비하고, 약을 며칠 분씩 나눠서 담아놔야 했다.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진료하느라 녹초가 될 법도 한데 그들의 눈빛은 세네갈 하늘에 반짝이는 별보다 반짝였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워” 치료하지 못한 환자들 기억에 남아

NGO 더멋진세상이 건축한 께르 발라 초등학교에도 방문했다. 이 학교 학생들의 건강검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사 같았다. 왁자지껄 웃어대는 웃음소리가 그 어떤 찬양보다 아름다웠다. 사슴눈망울보다 예쁜 눈동자를 반짝이며 스스럼없이 사진을 찍어달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예쁠 수 없었다.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도 아이들은 백만 불짜리 미소를 선물해줬다.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아이들의 온기가 지금도 느껴진다.

이지원, 정유정, 한인화 자매가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연주하자 아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어설픈 발음으로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를 따라하는 그 아이들을 보는 내내 미소가 번졌다.

께르 발라 초등학교 학생 614명이 건강검진을 무사히 마치고 니야그 보건소로 향했다. 니야그 보건소는 본나바 마을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그곳에 마련된 진료소도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전날에는 도로까지 줄을 섰다고 한다. 좁은 마당이기는 했지만 한 사람이 지나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접수팀 박승영 형제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옆에 있던 이유나 자매도 마찬가지였다. 쉼 없이 이어진 강행군에 지치고, 힘들다고 하소연이라도 할법한데 그들의 표정에는 천국이 임재해 있었다.

의료봉사 중에서도 치과진료가 인기가 많았다. 치과의사가 한 명 밖에 없었던 터라 더욱 그랬다. 세네갈 사람들이 치과진료에 몰리는 이유가 있었다. 그들의 치아관리 수준이 심각했다. 치아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세네갈에 도착했을 때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 왔었다. 사람들이 손가락만한 길이의 나뭇가지를 씹고 있었다. 사탕수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세네갈 사람들의 칫솔이었다. 칫솔과 치약이 없어서 나뭇가지를 씹는 것으로 양치를 대신하고 있었다. 거기에 세네갈 사람들은 유난히 단맛을 좋아한다. ‘ 아야따’ 라는 차를 즐겨 마시는데 끓는 물에 찻잎과 민트 그리고 설탕을 섞은 것이다. 문제는 설탕의 양이다. 조그마한 잔에 찻물과 설탕의 비율이 1:1 혹은 1:1.5로 섞어 마신다. 단맛을 즐기는 습관 때문인지 치아가 썩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치과진료를 담당한 심형섭 성도는 쉴 틈 없이 치아를 뽑고, 시술을 했다.

이날 한 아이의 수술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수술실을 빌리기로 한 현지병원측에서 다시 검사를 받고 진행을 하자고 했다.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수술을 할 시간이 없어 결국 못하게 되었다. 성형외과 의사 이백권 성도가 무척 아쉬워했다. 의료봉사를 오기 전부터 수술할 아이를 위해 기도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 아이는 양쪽 얼굴에 혹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수술이 꼭 필요했다.

“어려운 수술은 아니지만 세네갈에서 그 수술을 받는 것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무척 아쉽습니다.”

이 아이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의료선교팀이 진료한 환자들 중에는 간단한 진료와 치료로 끝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경우가 있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중증 환자들이 장비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이먼 곳까지 장비를 챙겨왔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의료진들은 치료가 아니라 치료방법만 알려준 것을 무척 가슴아파했다.

8박9일 동안 의료선교팀 CMN은 치과 182명, 소아과 515명, 내과 446명, 산부인과 410명, 정형외과 184명, 성형외과 101명(수술 3명), 비뇨기과 220명(수술 9명), 초등학교검진 614명 등 2,672명을 진료했다. 최선을 다해 구슬땀 흘렸지만 치료한 환자보다 치료하지 못한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의료선교팀의 진심이 본나바 마을 주민들에게 전해졌나보다. 세네갈 현지에서 소식이 전해졌다.

“세네갈 사람들이 한국의료팀의 헌신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다른 나라 의료팀들은 정해진 시간만 봉사를 하는데 한국의료진들은 다르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친절하고, 웃어주는 한국의료팀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합니다.”

CMN: 02-3215-3786
더멋진세상 : 02-2271-2246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8

“한류와 복음, 이보다 좋을 순 없다”

한국을 알리고, 문화를 소개하고, 복음도 전파하고

길공동체, 대만 스린 링량탕교회를 가다

한류와 복음이 만났다. 길공동체가 대만 청년들에게 한국문화와 복음을 선물했다. 한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패션과 화장법을 전수하고, 매콤달콤한 떡볶이 맛도 보여줬다.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이어진 한국과 대만 청년들의 아름다운 만남을 취재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길공동체와 스린 링량탕교회 청년들이 스린역에서 찬양을 하고있다.

길공동체 한국문화 전도사들이 뭉쳤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진아 자매, 패션 디렉터 이지현 자매, 쉐프 이종찬 형제가 그 주인공이다. 이외에도 한국문화를 알리고, 복음도 전하는 숨은 보석들이 13명이나 더 있다.

길공동체 대만 아웃리치는 대만 청년들에게 한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패션과 화장법을 전수하고, 한국음식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국도 알리고, 복음도 전하자는 취지였다.

리잉시엔(29세) 자매는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보고 한국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 한국 문화나 소식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최신유행하는 패션과 화장법을 배우고, 맛깔 나는 한국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었다. 그러던 찰나에 한국교회에서 한국의 패션과 화장법을 가르쳐 주고, 한국음식도 맛보게 해주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송혜교처럼 엣지있게~”

“태양의 후예 송혜교처럼 화장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볼터치는 환하고 엣지있게~! 눈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진아 자매(길공동체)가 리잉시엔 자매에게 한국에서 최신 유행하는 화장법을 전수해줬고, 패션 디렉터 이지현 자매는 유행하는 옷을 입혀줬더니 연예인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리잉시엔 자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꼭 해보고 싶었던 경험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린 리잉시엔 자매에게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소개했다.

“당신을 그 누구보다 귀하고 예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은 늘 당신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 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리잉시엔 자매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 이날은 그녀에게는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랍고도 특별한 날이었다.


어린이를 위한 캠프.

떡볶이와 예수님

대만인들이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 먹는지 몰랐다. 매워서 혼났지만 말이다.

“눈물이 쏙 날만큼 너무너무 매웠어요. 그런데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달콤하고 쫄깃한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난생 처음 떡볶이를 맛본 대만 청년들의 공통적인 말이다. 그들은 분명 매운 맛에 혼쭐이 났지만 깊으면서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떡볶이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대만 청년들이 떡볶이 매력에 흠뻑 빠진 것처럼 예수님의 매력에도 완전히 빠졌으면 좋겠어요.”

쉐프 이종찬 형제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떡볶이 전도’를 했다. 맛깔스러운 한국 음식도 소개하고, 예수님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의 예상대로 대만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다. 맛있는 한국 음식도 먹고, 영원한 친구 예수님도 만나는 일석이조였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구속될 것 같은 느낌이 떡볶이의 매운 맛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운 맛 보다 훨씬 달콤하고, 쫄깃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맛이 떡볶이의 진짜 매력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훨씬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夜)시장 전도자

대만의 야(夜)시장에 길공동체 전도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혼잡하고 복잡한 야시장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외쳤다. 만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전도부채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길공동체 전도자들의 열정은 차세대에게도 이어졌다. 차세대를 위한 여름캠프를 연 것. 여름캠프에도 한국문화가 고스란히 묻어있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팀별구호 외치기, 수건돌리기, 물총게임, 바가지로 물풍선 옮기기, 빨대로 양파과자 옮기기, 카드 뒤집기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게임들이 대만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도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

한류와 복음이 만났더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 닫힌 마음을 여는 데에는 한류만한 것이 없었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소망을 꿈꾸게 하는 데에는 복음보다 좋은 것이 없었다. 한류와 복음이 만나니 이보다 좋을 순 없더라.

대만의 기독교 역사

“다시 부흥을 꿈꾼다”

1590년 포르투갈인에 의해 대만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됐다. 이후 1627년 5월 4일 네덜란드 선교사 조지 칸디디우스(Georgeius Candidius)가 대만의 남쪽 대남(臺南)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당시 네덜란드 선교사들은 세금징수, 영업허가증 발급, 식민지 관리 등 식민통치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주로 했다. 정치와 종교의 목적을 가진 네덜란드 선교사들에게 대만인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1860년 9월, 더글라스(Carstairs Douglas)와 맥켄지(H.L.Mackenzie) 선교사가 대만선교 탐사를 다녀온 이후 1865년 5월 28일 영국장로회가 맥스웰(Dr. James L Maxwell) 선교사와 장로 3명을 파송했다. 그해 6월 16일부터 대만에서의 공식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지금도 그 날을 선교기념일로 지정하고 지키고 있다. 맥스웰 선교사는 대만에 성경책을 전하고, 의료 및 문서선교에 상당한 공헌을 세웠다.

대만 북부 지역에는 복음이 조금 늦게 전해졌다. 캐나다장로회 소속 맥케이(George Leslie Mackay)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다. 그는 1872년 3월 7일 단수이(淡水) 지역에서 목동들과 함께 대만어를 배우면서 선교했다. 설교, 교육, 치과진료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대만에서 29년 동안 선교하면서 적어도 4만개 이상의 치아를 뺐다. 맥케이 선교사를 통해 대만 북부지역에 60여 개의 교회와 옥스퍼드 중학교, 신학교, 맥케이 기념병원 등이 세워졌다.

대만은 1895년부터 1905년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겪었다. 일본정부는 대만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었는데 당시 대만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다. 하지만 1931년부터 황민화 정책과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또 다시 쇠퇴했다. 1945년 해방 이후 대만의 기독교는 전무후무한 발전을 이뤘다. 해방 전후 3만7천 명이던 대만의 기독교 인구가 1960년에는 38만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1960년대 경제성장 이후 다시 시들해졌다가 1990년대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9

부천 온누리교회 남아시아 N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김윤나 성도
(부천 온누리교회)

목사님께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를 가자는 제안을 듣고 고민이 많았다. 해외는 여행으로만 다녔지 아웃리치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걱정도 됐고, 설레기도 했다. 사실 남아시아 N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정말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더 컸다.

아웃리치 3주 전부터 영적공격이 점점 심해졌다. 마음이 수없이 요동쳤다. 낯선 땅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왔다. 숨이 막혔다. '정말 가야 해?', '내가 안 가도 갈 사람 많겠지?' 라는 생각이 아웃리치 가기 전 날 밤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비행기 놓치면 안 갈 수 있어'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편두통이 찾아왔다. 5시간 동안 이어진 긴 비행시간 동안 힘이 들었다. 공항에 내렸을 때도 편두통이 사라지지 않았다.

옆에 계시던 집사님께서 감기약을 건네주시며 "자기 전에 꼭 먹고 자"라고 하셨다. 숙소에 도착해서 그 약을 먹었다. 그러고 한숨 잤더니 편두통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이른 아침부터 남아시아 N국 A마을에서 의료사역이 시작되었다. A마을에 사는 주민들과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폐허를 보는 것 같았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치과치료와 내과치료를 받은 주민들에게 약을 제조해 주는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곳에 오지 않으려 했을까' 하는 반성을 했다.

아웃리치 둘째 날은 주일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의료사역을 시작했다. 전날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약을 받아 가는 주민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다. 다행히 통역하는 분께서 나의 기도를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셨다. 기도를 받기 위해 너무나 해맑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주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도하는 내내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기독대학에서의 일은 정말 큰 감동이었다. 약을 받고 나오는 한 아주머니께 기도를 해 드렸다.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잠깐 자리를 비워 손짓 발짓을 해가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는 소리 못 들으셔도 됩니다. '아멘' 이라고 외치세요!"라고 말씀 드렸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주머니가 아주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셨다. 통역하는 분이 그 분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젯밤 꿈에서 아웃리치팀을 보여주셨대요."

그 아주머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는 발걸음을 멈췄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의 꿈에서 아웃리치팀을 보여주셔서 진료를 받으러 왔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다.

이후에도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평소 내가 사용하지 않던 방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 방언이 꼭 현지어 같았다. 내가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를 듣고, 눈물 흘리는 주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 전달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지어 같던 그 방언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남아시아 N국를 향한 사랑이 시작 되었다.



진료를 받은 현지인을 위해 기도하는 아웃리치 팀원.

안양평촌공동체 서울 평양산정현교회

책장 채우고, 밭일 하고, 병을 고치고



이윤석 순장
(안양평촌공동체
신실한다락방)

"탈북미혼모 사역이요?"

탈북미혼모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강제로 결혼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성경에 적혀있는 '고아' 와 '과부' 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우리 공동체가 아웃리치를 가기로 한 '평양산정현교회' 는 양천구 목동에 있는 탈북민교회다. 교역자도 교인도 모두 탈북민이다. 출석 교인 30명 중에 여성이 23명인데 그 중에 미혼모가 10명이나 된다.

안양평촌공동체 아웃리치는 3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신실한 사람들' 이 되고 싶었다.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은 막 이사한 평양산정현교회의 책장을 채우는 것이었다. 공동체에 부탁해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과 동화책, 성인들을 위한 신앙서적 등 수백 권을 모았다. 책장을 다 채우고도 한 가득이나 남아 있다.

두 번째 미션은 평양산정현교회의 3천평(1만㎡)이나 되는 밭의 김매기였다. 누군가가 포천 산정호수 근처의 넓은 밭을 평양산정현교회에 빌려줬다고 한다. 평양산정현교회 성도들은 교회 자립을 위하여 직접 수확한 콩으로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작년에는 추수한 콩을 누군가 훔쳐갔고, 올해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콩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 결국 콩 대신 들깨를 심어야 했다. 우리팀은 그 밭의 김매기 작업을 도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김매기였다. 그 밭은 겨울에 눈썰매를 타면 딱 좋을 정도로 경사진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었다. 일은 힘들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일하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다. 하루 종일 우리팀과 평양산정현교회 식구들이 하나 되어 들깨를 심고, 김을 매고, 밭 입구에 있는 갈대도 정리했다. 맛있는 식사와 뜨거운 기도회는 덤이었다.

세 번째 미션은 여름성경학교였다. 평양산정현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여름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예수님 이야기' 를 주제로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성경학교를 준비했다. 유아 4명, 초등 2명, 중등 2명, 고등 1명이 참가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연령이 달라서 난감하기도 했지만 나이에 맞는 공과들을 구해왔고, 풍선도 불고, 포토존도 만들었다.

여름성경학교에서는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신나게 뛰어 놀았다.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을 즉석카메라로 담아 한쪽 벽을 수놓기도 했다. 네 번째 미션은 의료사역이었다. 탈북민들은 굶주리고, 인신매매로 팔려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이들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와 병이 많았다. 우리는 그들의 아픈 몸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들을 섭외했다. 짧은 시간에 섭외해야 했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과, 한의사, 수기팀 등 귀한 일꾼들을 예비해 두셨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진료했고, 약도 처방했다. 그들의 아픈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줬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이런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다.

우리 팀이 여러 미션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 모든 일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준 지체들이 귀하고, 감사할 뿐이다. 대표장로님이 일회성 행사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썼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우리 공동체는 탈북미혼모들과의 사귐을 이어나갈 것이다.



평양산정현교회 어린이들과 함께한 여름성경학교.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10

인천 WEB공동체 대전 참빛교회

아웃리치는 내 인생의 등대



신주용 형제
(인천 WEB공동체)

난생 처음 갔던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다. 두 번째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은 나를 교사로 쓰임 받게 하시면서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쓰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설렘을 갖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번 대전 참빛교회 아웃리치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로 부르셨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나는 식사팀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요리를 해 본 적 없는 내가 식사팀장이라니… 많이 의아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전 참빛교회 아웃리치는 식사준비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으로 시작되었다. 아웃리치에서의 첫 끼니부터 나의 부족함이 모조리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계속 우왕좌왕하는 식사팀이 걱정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매 끼니 어려움이 있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의 도움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다. 아침 준비하고 치우면 점심식사 준비를 해야 했고, 끝나자마자 또 다시 저녁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일정이 모두 끝난 밤에는 다음날 아침식사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했다. 똑같은 일정이 반복되다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할 것을 기대했던 이번 아웃리치가 내심 아쉽고 서운해졌다. 분명 식사준비라는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 의문스러웠다. 예배와 사역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도 했다. 다행히 폐회예배는 드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갈망했던 예배의 자리에서 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릎만 꿇고 있었다. 기도가 되지 않았다. 기도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다. 그래도 팀장이니까 팀을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우리 식사팀…"

어렵게 입술을 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도 안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동안의 설움을 하나님이 모두 알아주신다는 것 같은 위로하심에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전 참빛교회 차세대와 인천 WEB공동체 청년들의 즐거운 시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본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주방에도 계셨다. 식사팀과 함께 하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났다. 두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식사팀과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 주셨던 것이다.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면 항상 주방으로 오셨다. 그리곤 "식사팀도 식사 하세요"라며 우리의 등을 떠미셨다. 본인은 식사도 거르고 설거지를 하시곤 했다. 목사님의 섬김이 정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이뤄야 하는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아웃리치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과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아웃리치는 내가 가야할 길을 비춰주는 소중한 등대와 같다.

서초D공동체 괌

한 손에는 복음을, 또 한 손에는 사랑을!



오사랑 성도
(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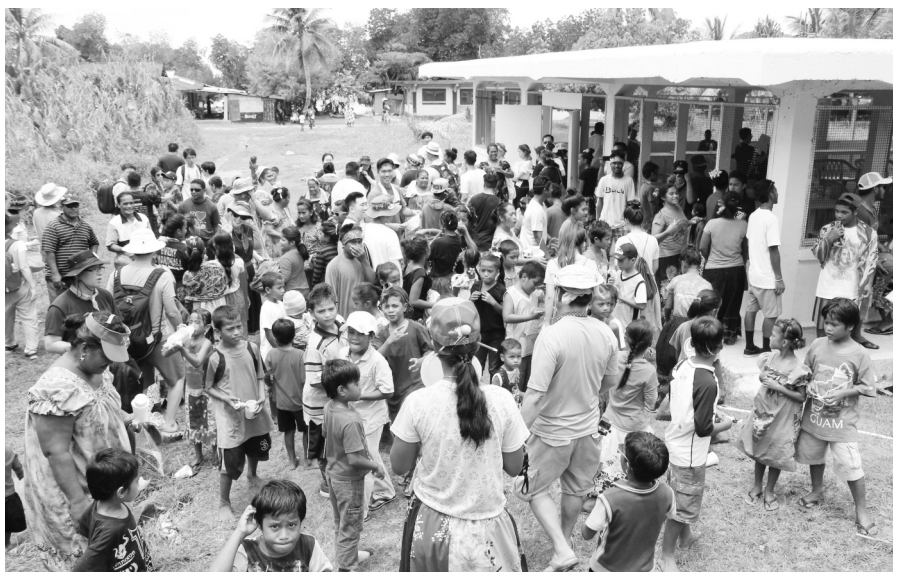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가는 아웃리치였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다. 해외봉사를 가는 느낌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괌 온누리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미크로네시아연방 추크(Chuuk)주의 모엔, 페핀, 토노와스 섬에서 의료 및 어린이사역을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오지에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아 괌 온누리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신청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나는 추크섬으로 배정됐고, 출발 10여 일을 앞두고 어린이 사역팀장과 물류팀장을 맡게 되었다. 80kg에 달하는 문구류, 과자 등 어린이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확인하는 일부터가 고역이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필요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추크섬 사역을 함께 할 괌 온누리교회팀과 메신저를 주고받던 중에 이경주 집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다.

"부끄럼을 많이 타는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지난해에는 태풍이 불어 가지 못했습니다. 코코넛 나무만 무성한 그곳의 아이들이 2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기둥이 솟구친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기도를 드렸다.

추크섬으로 가는 길은 무척 험했다. 괌에 도착해서 8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추크섬으로 갔다. 그곳의 환경은 정말 열악했다. 설상가상으로 사람만 도착하고 사역 물품과 짐이 하나도 오지 않았다. 추가화물기를 저녁까지 띄워주겠다는 설명만 돌아왔다. 도착한 당일 오후부터 사역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의료장비도, 어린이사역 물품도 도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결국 그날 사역이 취소되었고, 팀원들은 지쳐버렸다.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까지 더해져 더욱 힘들었다. 불쾌지수가 얼마나 높았는지 모른다. 그런데 샤워용품도, 갈아입을 옷 하나 없었다. 당장 내일 사역도 걱정이었다. 정말 막막했다. 만약 내일도 짐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하는 생각이 들어 두려움이 커져만 갔다. 그날 저녁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세웠던 계획이 모두 무산되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가 교만했다. 우리의 물질과 재능, 준비와 장비에 의존해 섬기고 있었다. 내가 경험한 이 기쁜 소식을 나누러 왔는데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려고 했고, 자꾸 문명을 소개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약봉투를 들고 가던, 색종이를 들고 가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



아웃리치 팀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아이들.

그 다음날 우리는 아무런 물품도 없이 통통배를 타고 남태평양 페핀섬으로 향했다. 의료팀은 문진으로만 환자를 진료했고, 어린이사역팀은 괌 온누리교회에서 미리 보내둔 물품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 제대로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걱정은 우리의 기우였다. 그들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무척 반가워했다. 아이들은 작은 게임에도 환호하고, 온 몸으로 기뻐했다. 아이들이 목청껏 지르는 환호성으로 온 섬이 들썩였다. 특히 어린이 100여 명이 30분 간 부르던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고단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특히 유린이라는 세 살짜리 아이가 기억난다. 해변 앞 나무에 걸터앉아 있던 유린이를 품에 안고 찬양을 불러주었다. 찬양을 계속 들려주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유린이가 그 작은 손으로 내 목에 감싸고, 얼굴을 파묻었다. 쌔근쌔근 잠이 들었다. 하나님이 저 하늘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다.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사랑하는 이 깨끗한 사람들을 네가 보았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문명이 아니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명과 물질이 아니다. 그들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복음, 관심, 눈빛, 사랑이 그들을 꿈꾸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빈손이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아웃리치였다.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11

금요철야예배팀 중동 O국

세 가지 기적



장은정 자매
(금요철야예배 사역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한 포로귀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엄한 섭리였다. 귀환,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번 아웃리치의 비전이다.

아웃리치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로 영의 양식을 먹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팀원들은 중동 O국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기적과 각자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기대하고 사모했다.

김포를 출발해 중국 북경과 우루무치를 경유, 중동 O국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다. 그런데 연착으로 우루무치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 북경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다. 예상치 못한 일정 변화는 팀원들에게 큰 불편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한 자매를 만났다. 그녀는 중동 O국에서 거주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녀에게 한인교회를 소개했고, 임시숙소에서 그 자매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혼자 불안한 상황에 있었을 그녀가 우리와 만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것이 우리팀에게 생긴 첫 번째 기적이다.

두 번째 기적은 성령집회에서 나타났다. 한인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 번의 성령집회를 열었다.

이해영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예루살렘의 영적 의미에 대해 강조하셨다. 예루살렘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성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세상 최고의 만남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며, 동역자들의 만남을 감사와 존경으로 지켜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다.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설교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한인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여기저기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날, M양로원을 방문했다. 그곳이 이번 아웃리치의 마지막 사역이었다. 이해영 목사님은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께 "고향이 어디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리고선 "우리는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라고 복음을 선포했다. 또한 찬양과 율동과



한인교회 성도들과 성령집회 중인 아웃리치 팀.

워십을 준비했는데 어르신들은 물론 수녀님들과 간호사들에게도 감동으로 전해진 것 같았다. 우리 팀원들 모두가 눈물 범벅이 되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양로원에서의 사역이 그곳이 복음화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세 번째 기적이다.

고레스 왕의 귀환 명령,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품었던 비전이었고, 이제는 함께 이뤄가야 할 목표가 되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분당B공동체 동아시아 A국

1분 1초가 귀했고 은혜로웠다



김현 집사
(분당B공동체)

"센베노~ 환영합니다! 김현 집사님."

새벽 1시가 다 되어 도착한 동아시아A국 공항에서 내가 처음 들은 말이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알고 보니 선교사님 남편이 일주일 내내 SNS에 올라와 있는 분당B공동체 아웃리치팀 38명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계속 외웠다고 한다. 탄성이 절로 나왔다. 그렇게 시작된 동아시아 A국 아웃리치에서는 4박6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했다. 참으로 크나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번 아웃리치의 주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 40:1)였다. 우리는 주제에 맞게 의료 및 기타사역을 준비했지만 동아시아 A국 공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로 일부 의약품이 통관하지 못했다. 새벽 4시에 아쉬움을 남긴 채 숙소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아웃리치 첫날 아침, 동아시아 A국 국제대학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의료사역을 했는데 환자들이 몰려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을지, 일부 의약품을 압류 당해서 모자라지는 않을지, 동아시아 A국 사람들을 찬양과 기도로 치유해 줄 수 있을지 등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동아시아 A국 국제대학교에서 10분 떨어진 기숙사 시설도 매우 열악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 한두 군데 고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지, 어디를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기숙사 시설들을 하나씩 고쳐가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시설물들도 보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평소 집에서 못 하나도 박지 않는 내가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의료사역 현장은 놀라웠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도 도무지 줄이 줄지 않았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팀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부모와 함께 아웃리치 온 어린이들이 진료 받는 환자들을 안내하는 모습도 귀했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A국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느꼈다.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반성했다. 사역하는 1분 1초가 정말 귀했고 은혜로웠다.

다음 날 QT하면서 내 안에 뿌리 뽑아야 할 죄의 습관을 묵상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넘어 새 날의 사역에 대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날 방문한 G지역의 J마을은 아침 5시면 태양이 환하게 떠있다. 그러나 주민 어느 누구도 선풍기 하나 갖고 있지 않다. 강렬한 햇빛 아래서 의료사역이 이



동아시아 A국 어린이를 진료하는 아웃리치 팀.

틀에 걸쳐 진행됐다. 다른 한 팀은 기숙사 공용실과 식당을 보수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다. 분당B공동체는 제한된 시간 내에 보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함께 일하는 현지인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다. 그래서일까. 일을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섬기게 하셨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동아시아 A국 부부 선교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 팀의 정신없는 요구를 얼굴 찌푸림 한 번 없이 도와주셨다. 주님의 부르신 뜻을 믿으며 주의 걸음을 뒤따르는 모습이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4박6일 동안 우리 팀을 위해 쉬지 않고 애써 주셨던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12

노원공동체 전북 임실

"내가 그곳에 먼저 가 있겠다"



박진호 집사
(노원공동체)

올해 5월 공동체 국내 아웃리치 팀장직을 권유받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다. 그리고 농어촌선교회의 추천으로 임실 선거교회를 방문했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거교회 앞마당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집품이 가득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입간판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보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교회가 있는지를 물었다. 선거교회 목사님은 2년 전 바로 옆 마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다면서 그 교회에 문의해 보겠다고 하셨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직접 옆 마을 학암교회를 찾아가 의견을 타진했다. 학암교회 목사님도 흔쾌히 찬성하셨다. 공동체에서도 미자립교회 두 곳에서 아웃리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일주일 뒤, 팀장으로서의 부담감 때문에 혼자 선거교회를 다시 방문했다. 팀원들이 잠잘 곳과 주방 등을 다시 확인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현지 목사님들과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선거교회 목사님이 인근에 있는 운암제일교회에서도 아웃리치를 해달라고 제안하셨다. 졸지에 목사님 세 분을 만나서 3시간 동안 아웃리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돌아왔다. 문제는 공동체의 의견이었다. 걱정과 부담을 갖고 공동체에 보고했는데 흔쾌히 찬성해주었다. 그렇게 전북 임실 선거교회, 학암교회, 운암제일교회로 아웃리치 가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도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 한정된 인원으로 교회 세 곳에서 한방, 영양주사, 이·미용, 독거노인 집청소, 교회 보수, 가가호호 방문전도 등의 사역을 소화해야했기 때문이었다. 정말이지, 공동체 지체들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사역을 분업하고, 팀장을 정하고, 기도회를 했다. 그런데도 '과연 이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마지막 회의 때 모두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확신이 임했다. "내가 그곳에 먼저 가 있겠다"는 음성이 들렸다. 그 동안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근심과 염려가 눈 녹듯 사라졌다. 이번 아웃리치가 성령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웃리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70여 명의 아웃리치 팀원들이 전북 임실을 찾았다. 학암교회에서 도착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교회, 선거교회, 학암교회, 운암제일교회가 모여 드린 도착예배는 그야말로 감격의 도가니였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곧바로 응답해 주셨다. 세 교회에서 100여 명 가량의 주민들이 의료사역의 혜택을 받았고, 50여 명이 이·미용팀의 섬김을 받았다. 선거교회 마당도 깨끗해졌다. 새 잔디를 입혔고, 교회종탑과 외벽에 페인트칠도 했다. 입간판도 다시 세우고 차양천막도 설치했다. 그야말로 탈바꿈했다. 35도가 넘는 폭염에도 누구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오직 복음에 매달렸다. 전도팀은 의료 봉사를 받기 위해 오신 마을 어르신들에게 사영리와 5분전도 교재를 사용해 복음을 전했다. 가가호호 방문도 했다.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주일에는 세 교회로 흩어져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원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세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주셨다. 선거교회에 8명, 학암교회에 3명, 운암제일교회에 3명이 교회에 나왔다. 선거교회 목사님은 앞줄에 앉은 8명의 새신자들을 보고 목이 메어 한참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셨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다. 무엇보다 우리의 손과 발로 복음을 전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전북 임실에 있는 세 교회를 섬긴 노원 공동체.

남양주 J1공동체 제주도

그렇게 재미있고 기쁠 수 없었다



김성령 자매
(남양주 J1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배우고 싶어 아웃리치에 참석했다. 제주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번 아웃리치의 주요사역이었다. 평소 어르신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알았기에 부담되지는 않았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했다. 날씨가 무척 더웠고, 낯선 어르신들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다. 어려운 마음으로 들어간 첫 집에서 만난 어르신이 아웃리치팀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팀원들은 어르신 주위에 둘러 앉아 대화를 나눴지만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어르신의 눈을 바라보는데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아야 했다. 혹시 내가 어르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우는 것처럼 보일까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어르신에게 전도팔찌를 끼워드리며 복음을 전했고, 그 어르신은 귀담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영접 기도문을 따라 읽는 어르신의 목소리에 나뿐만 아닌 팀원들 모두 눈물이 터졌다. 하나님도 그 순간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그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기쁨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다음 집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걷기도 힘들고, 귀도 안 들리고, 앞도 잘 안 보인다는 어르신을 만났다. 우리는 그 어르신께도 복음을 전했다. 영접기도를 따라 하기 힘들어하시던 어르신께서 아멘으로 화답하셨다. 첫 번째 집에서는 지켜만 봤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어르신을 꽉 안아드렸다. 어르신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준비한 경로잔치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다. 어르신들은 우리를 손자손녀 보듯이 좋아하셨다. 그리고 기뻐하셨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어르신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셨다. 어르신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기쁠 수 없었다.

협재교회 신장수 목사님께서 "이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교제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제가 어르신들을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모두 다 함께 영접기도를 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접기도를 하셨다. 너무 기뻤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 경로잔치는 천국잔치로 막을 내렸다.



남양주 J1공동체 청년들이 제주도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땅 밟기 전도사역을 위해 '아홉굿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언저리를 걷다 도로 너머에서 홀로 깨를 털고 계신 어르신을 만났다. 나는 용기를 내 전도팔찌를 드리며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어르신께서 영접기도를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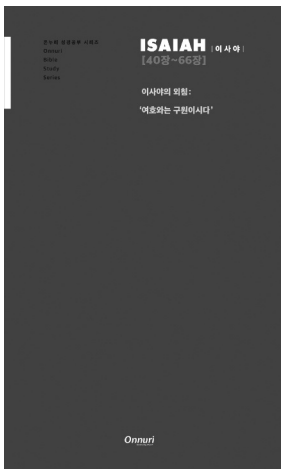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은 영혼들을 만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낯선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이웃사랑의 시작은 나의 관심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아웃리치팀 때문에 영접기도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영접기도를 한 것이다. 우리가 만난 모든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160828-1113_2012528 -90216 16. 8. 26. 10:02 Page 13

양육 프로그램 'OBC 이사야2' 과목 신설

아이스쿨 어플리케이션 사용도 간편해져

온누리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OBC 이사야2' 과목이 신설됐다. 아이스쿨 어플리케이션 사용도 더욱 간편해졌다. 다음은 양육본부장 박태영 목사와의 일문일답.



'OBC 이사야2' 교재표지



아이스쿨 어플리케이션 메인화면

신설된 'OBC 이사야2' 과목은?

"'OBC 이사야2' 과목은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 내용이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논의하는 과목이다. 교재를 우리 교회에서 직접 개발했다. OBC(Onnuri Bible Club)는 성도들이 성경 66권을 평생 배우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Acts29비전을 가정과 직장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3년 전 시작됐다. 그때부터 교회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해왔다. 이번에 선을 보이는 이사야2 과목과 그 교재가 첫 번째 과정이다. 이사야2를 시작으로 이사야1, 사도행전, 빌립보서, 창세기, 레위기 과목들이 차례로 개설될 예정이다."

아이스쿨 어플리케이션(앱)도 개선되었다는데.

"휴대폰으로 쉽게 아이스쿨 신청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했다. 과목 신청 및 검색, 문의, 과제 제출 등을 앱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리자(총무)도 더욱 편리해졌다. 성도들의 수강신청 내용 및 완료 유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강정보 알림 기능도 추가했다. 과제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아이스쿨 어플리케이션 받는 법

안드로이드폰: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온누리교회 아이스쿨' 검색하고 다운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이스쿨' 검색하고 다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홍성재 장로 천국환송예배

홍성재 장로가 지난 18일 향년 83세의 나이로 소천했다. 8월 20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유가족, 이재훈 담임목사 등 동역자 200여 명이 참석해 홍성재 장로의 천국 가는 길을 배웅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이정숙 권사, 자녀 홍준기, 자부 장현진, 자녀 홍인기, 손녀 홍요안나가 있다.



홍성재 장로는 온누리교회 행정 시스템 구축과 일대일 제자양육에 헌신했었다.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 인턴십 모집

9월 10일까지, 신학부 4학년, 신대원 1~2학년 대상

온누리교회가 9월 10일까지 '파트교역자 인턴십'을 모집한다. 신학부 4학년, 신대원 1~2학년, 기독교교육대학원 1~2학년이 대상이다. 9월 10일까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onnurihr@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9월 13일 개별 통보된다. 파트교역자 인턴십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온누리교회를 소개하고, 사역경험을 제공하는 장이다. 9월 24일, 10월 1일, 10월 14일~15일에 교회, 사역본부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인턴십 과정을 수료하면 2017 온누리교회 파트전도사로 우선 채용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3215-323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교회오빠의 연애큐티' 베스트 브랜디드 시리즈상 수상

CGNTV 웹드라마, K웹페스트에서 경쟁력 입증

CGNTV가 제작한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큐티'가 제2회 K웹페스트에서 베스트 브랜디드 시리즈상을 수상했다. K웹페스트는 아시아 유일 웹시리즈 전문 영화제다. 공식 초청된 국내외 100여 개 작품 중에서 미국, 호주, 독일, 브라질 등 16개국 웹페스트 조직 위원장들의 심사로 베스트 브랜디드 시리즈상 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CGNTV의 기독 문화 콘텐츠가 대중문화와 견주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CGNTV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큐티'는 분명한 메시지, 탄탄한 구성, 신선한 소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영만 집행위원장은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큐티'에 대해 "누구나 거부감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기독 문화 콘텐츠"라고 평가했다.

웹드라마 '교회오빠의 연애큐티'는 평범한 교회 오빠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짜 교회오빠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6부작 로맨틱코미디 드라마다.

네이버 TV캐스트와 CGNTV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온사랑합창단, 한국·대만·일본 국제음악회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화합의 장

온사랑합창단이 지난 22일 CTS art홀에서 열린 '한국·대만·일본 국제음악회'에 참석했다.

한국·대만·일본 국제음악회는 각국 장애인 뮤지션과 비장애인 뮤지션들의 화합의 장이다. 지난해 대만에 이어 올해는 한국에서 개최됐다.

온사랑합창단과 프리즘앙상블이 한국 장애인 뮤지션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온사랑합창단은 '오빠생각'과 '도레미송'을 연주했다.

온사랑합창단원 최민솔 형제의 어머니 박공의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는데 관중들이 큰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한국·대만·일본 국제음악회를 기획한 장애령 단장(프리즘앙상블)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소통하면서 공연을 준비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김영선 기자

서빙고·양재, 성찬 포도즙 제조

성찬예식용 포도즙을 제조한다. 양재는 9월 5일과 6일, 서빙고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교회식당에서 제조한다. 이 기간 동안 교회식당은 운영되지 않는다. 각 공동체 권사 2명이상은 해당 봉사시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공동체 총무는 담당 간사에게 봉사에 참여할 권사의 이름을 제출해야 한다. 집사 및 권사 임직후보자들은 양재 9월 5~6일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3시~ 8시, 서빙고 9월 26일 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1시~6시, 27일 오전 9시~오후 1시, 오후 2시~6시 중에 선택해서 봉사할 수 있다.

문의: 서빙고 02-3215-3268
양 재 02-570-7311

/ 김영선 기자

각 공동체 권사 봉사 일정

서 빙 고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5시
9월 26일(월)	서빙고, 한강, 이촌, 강촌, 용산, 신용산, 서대문, 마포, 여의도, 관악금천, 양천, 동작, 이수	노원, 중종로, 가정사역, 동대문중랑, 성동광진, 김포, 강서, 일산, 고양은평, 성북, 영등포구로, 북누리, 광명
양 재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3시~ 8시
9월 5일(월)	강남A, 강남B, 강남D, 송파	산본안산, 과천의왕, 안양평촌, 서초B
9월 6일(화)	서초A, 서초C, 서초D, 양재	분당A, 분당B, 강남C

서빙고, 양재 찬양사역팀 모집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찬양사역팀원을 모집한다. 서빙고는 9월 4일 오전 8시~오후 5시, 양재는 9월 4일과 11일에 로비에서 접수를 받는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공동체 소속 세례교인,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챔버사역팀은 전공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38(서빙고),
02-570-7437(양재)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9월 4일 / 시간: 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양재 드림홀
대상: 7월 4일~8월 21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박소희	김제돈	분당A	서초A	유호성	엄효정	조재숙
기준성	신현철	이관행	김미정	고경애	이승민	오유주	
김경희	양정애	이승한	김정란	김영은	이주영	윤희철	양 재
김세훈	이미옥	이현경		김태화	최영연	이명주	송미숙
박석재	이승희	임동남	분당B	남혜용		이철성	서정옥
유순호	전홍정	임영순	김병성	한의숙	서초C		신태환
장영은	지영주	조금영	정재권	한정훈	김민섭	송 파	원명희
최미정	한진호		최정원	현옥희	옥동민	민경근	정은실
	황미영	과천의왕				박진평	
강남B		박수진	산본안산	서초B	서초D	이일규	
김동진	강남C	안세훈	구휴정	남궁진	김태훈	정은주	
김민정	김경아			박복임	나미라	정종수	

1113호 20160828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8. 26. 오후 10:03 페이지 1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 예꿈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땅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땅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천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서빙고 목요어머니 기도회
시간: 목요일 10시 30분 / 누리홀
문의 : 안민경 간사(02-3215-3523)

16년도 순장학교2차수(162기) 안내
기간: 9월 18일~12월 4일(12주간)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30분~7시 30분
마감: 9월 11일(일요일)
등록방법: iSchool ' 학습지원프로그램'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공동체담당 목
사님 서명 후 목회지원실 제출
문의: 백인영 간사(02-3215-3220)

하반기 일대일과목별특강 개강안내
일시: 주일 오전 8시 10분~10시 10분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강의일정 : 8월 28일 성경 손신국 목사
9월 11일 기도 이찬우 목사
9월 25일 교제 이창규 목사
참가자격 : 모든 양육자

제 63회 성령수련회
강사: 박성은 목사
일시: 9월 24일(토) ~ 25일(주일)
회비: 4만원
문의: 서빙고-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양재-김현옥 집사(010-8955-3610)

성경적 삶을 디자인하는 브런치타임
기간: 9월 2일~ 9월 23일(매주 금)
오전 10시 30분~오후 1시
강사: 강미향 목사
장소: 선교관 지하 2층 시온홀(첫주차는 2층 꿈아이홀)
회비: 2만원(중식포함)
접수: ischool에서 수강신청(브런치타임)
문의: 총무 010-5018-0241

온누리 아트비전 그림큐티 특별전
일시: 8월 31일까지
장소: 서빙고 1층 카페
주제: ' 그림큐티'
문의: 황혜성 팀장 010-4876-2354

청년 매칭 프로그램 iWe 10기 모집
일시: 10월 8일부터 4주간 (토)
대상: 1982년~1985년생 형제
신청: 9월 10일까지
문의: iweonnuri4u@gmail.com

〈생명의 삶〉과 함께하는 일본어 중급반
기간: 9월6일~11월29일
시간: 오후1시~4시(매주 화요일)
장소: 선교관1층 Acts29 홀
자격: 기본적인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분
문의: 한행자 권사(010-7738-3604)

양 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 (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묵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묵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복정역 2번출구 9:20 출발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양재 목요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JDS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도곡 어머니기도회
목요일 10시 30분 / 충성홀
문의: 이현주 간사(02-570-7553)

요한복음 집중반
일시: 9월 1일~11월 10일
(매주 목, 10주, 10시~13시)
내용: 요한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요한복음 탐구여행
강사: 김동수
장소: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문의: 02-2078-3456

제13기 하트스쿨 사역자학교 모집
일시: 9월 24일(토)~12월 10일(토)
14시~18시 (12주간)
장소: 양재 JDS홀, 충성홀
문의: 이현대 전도사 010-5415-3879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 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오전7:00/2부오전9:00/3부오전11:30/4부오후2:00/5부오후4:00(대청예배)/6부오후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5:20 본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9:00, 11:30 / 유치부-오전9:00, 11:30
유년부-오전9:00, 11:30 / 초등1부-오전9:00
초등2부-오전11:30 / 유초등부-오후2:00
중등부-오전11:30 / 고등부-오전9:0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심야예배 매주 수 오후 9:0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우) 매주 오전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비전홀

수 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 주일예배
대학부 14:00 경찬홀, 청년부 15:00 사랑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대 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시 본당 / 4부 오후 4시 본당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5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09:00 본당 /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인도, 네팔) 매주 토 오후 7:00
사이닝글로리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목양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시30분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09시00분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오후 2:00 본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온누리워십 수 오후 7:30 본당
How Mission 목 오후 7:30 비전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9:0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본당
주일국제예배
몽골어 예배 11:30 드림홀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쉘터

인 천
032.437.9686

주일성인예배
1부 오전 9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2부 오전 1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3부 오후 1시 컨벤시아 1층 113-115호
Web대학청년 오후 2시 프리스페이스 6층
차세대예배
-컨벤시아(오전11시)
영아부 102호 / 유치부 110호
유년부 107호/ 초등부 104호
-프리스페이스 6층
중등부 오전 11시/ 고등부 오전 9시
사랑부예배(장애우) 오전 11시 프리스페이스 3층 기쁨홀
주일국제예배
헤븐리키즈(어린이영어예배) 13:00 컨벤시아 1층 111호
몽골어예배 오후 1시 프리스페이스 3층
수요오전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프리스페이스 6층
수요부흥예배 매주 수 오후 7:40 프리스페이스 6층

강 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30 본당
3부 (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 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본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 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11:00 / 3층 주선애홀 (영상중계)
예수님의 꿈아이(유아,유치)/ 11:00/지하1층 무어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자라는땅(초등) / 11:00 / 지하1층 킬보른홀
파워웨이브 / 11:0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수요선교예배 / 19:20 / 1층 시안홀

1113호 20160828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8. 26. 오후 10:03 페이지 2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굿모닝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치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금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940-1900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Marc Choi 목사 1-212-427-2055
  316 East 91st St., New York, NY 10128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rn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
  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A DAIA-
  MOND 2F
- **교토**
  아마니카 토모요시 목사 81-75-748-9303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kyoku, kyoto japan

■중동

- **아부다비**
  김태완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철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동**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ànghǎishì Mǐnhángqū Cáobǎolù 1243hào yōngwèishāngwùdàshà 3lóu 388shì
- **장춘**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승구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노치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일영 강일하 권오향
권용갑 김경훈 김관수 김도균
김도윤 김상수 김성욱 김성원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영진 김영창 김요성
김윤식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렵문홍 마이크리 문영재 박대원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세웅
박승재 박승훈 박윤헌 박철웅
석승호 성중원 손신국 손정훈
송영동 신동식 스티브차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우윤상 원유경 유수열 유영순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동훈
이민욱 이사엘 이상진 이서진
이성민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임향재 장대현
전신익 전재표 전홍천 전현규
정상훈 정성훈 정웅규 정재륜
정재욱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지대근 차명권 최성민
최성석 최영민 최용준 최혁중
채기석 한화수 홍기완 허원희
황재명 황종연 황준서 허태재

◈전도사(전임)
김용민 김재승 김종호 박사무엘
박승훈 배행삼 변대섭 송석근
유승현 이강현 이종현 정한효
한영철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이기복

◈협력목사
김도일 이기복

◈부목사(파트)
강은혜 곽상학 김지애 김종영
김창성 데이드라 론즈 레베카 론즈 마주마누룽
바랏 라살리 백영미 손 숙 신정빈
싱루아마눔 안희진 유세프제이 유승덕
윤용국 임선아 차제이미 한일택스다
황능준 Enoch Kwaku Hanokh

◈전도사(파트)
강병천 강지영 강한성 과바시사은
고인호 권효정 기호진 길혜영
김기태 김난희 김대운 김덕기
김라경 김민석 김민수 김선미
김선재 김세현 김소리 김승관
김영신 김요한 김용석 김은영
김은하 김진석 김진아 김진아
김진하 김찬숙 김형중 김혜경
김희연 나지혜 문장원 민경윤
박광규 박근명 박근법 박상명
박영원 박은자 박이호 박종의
박지예 박지원 방세미 배순양
백도훈 백영미 서종옥 서 철
서수민 서영희 송지은 신경훈
신대군 신중건 신하선 신현민
안사무엘 안용곤 알나단레위살레비 양은주
양진범 오스라 오준현 유 경
유진아 윤모세 윤상복 윤수신
윤정노 윤준석 윤치연 윤현규
윤형림 이경선 이다솔 이덕주
이명령 이선영 이승윤 이양권
이완희 이용기 이우람 이은경A
이은미 이은희 이재석 이정도
이종민 이준인 이지원 이진이
이창우 이풍주 이현대 이현석
임경헌 임요한 임정남 임지훈
임호진 장동원 장유미 장재원
장춘혜 정구현 정만희 정에스더
정영광 정영희 정지혜 정지환
정진만 정진아 조요구 조상훈
조성광 조성환 천정우 최규종
최대흥 최성규 최성필 최우윤
최재호 최정현 최현웅 카일라 요셉
하청훈 한대우 한민호 허영은
홍세녹 홍순영 홍정표
Lkhagvasuren Gan-Otgon

◈사역장로
강인지 권도원 김경선 김경철
김광선 김남열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순 김수광
김수웅 김영길 김원경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용성 김윤식
김이곤 김인화 김종건 김종승
김주흥 김주현 김진국 김철수
김학모 김현철 노재한 류지영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용국
박찬빈 배종수 백승웅 백호현
서진봉 서창희 서찬교 성창섭
송만석 송유신 송재길 신만인
신우권 안국영 양재수 염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완영
유재천 윤성열 윤지준 이강범
이건재 이국주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옥연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옥연 이용경
이용하 이용대 이종순 이창남
임광택 장양희 정강무 정돈영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윤채
정인순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조향진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최선수
최 명 최창규 최충길 최희영
하영철 하용기 한종대 홍기명
홍성재 황용오 황재규

◈시무장로
강기석 강부순 강신익 강영재
강영중 강의선 강찬석 강철호
고 건 고광필 고다이라 고영주
곽진성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오섭 권오혁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 완 김 웅 김 원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기영
김기호 김남식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종
김명현 김명훈 김민호 김병순
김병옥 김상섭 김상인 김상집
김선호 김성규 김성열 김성환
김성진 김수역 김승열 김연상
김영수 김영욱 김영한 김인선
김용기 김용호 김의득 김정일
김장열 김재욱 김재일 김종성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욱 김철민
김철주 김태경 김하중 김해기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상권 나명덕 남명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노기홍
노흥규 류기범 명영찬 문성기
문영기 문장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규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무원
박명균 박명률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규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수 박영국 박영태
박일면 박영한 박영희 박일구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 문 배기영
백남인 백홍기 상병선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송영범 송영태 송일섭
송종환 송창도 신무환 신민호
신영각 신학철 신한승 신현길
신현종 심길섭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심희돈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석식 양우식 양주현 양춘경
양충식 오상록 오성훈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 형 유병진
유병훈 유성하 유의준 유재홍
육동건 윤기홍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 철 이경찬 이경훈 이관수
이광순 이광형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수 이남식 이동규
이동희 이백용 이봉의 이상기
이상도 이상율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우곤
이은일 이인용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구
이정근 이종우 이태열 이태환
이한열 이해달 이헌규 이현조
이홍선 이화영 이희주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정열 이종길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성식 장형준 전구영 전영수
전장하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병균 정상기 정수업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운섭 정운오 정진하 정진호
정태경 정파종 정학영 정희원
조대식 조대희 조성현 조성환
조정구 조희동 주재량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민철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주관 최진성 최창수 최한우
최현재 편무옥 피터웰디 하성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형식 함공식 함일성 함정철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필우
허형석 홍덕표 홍범식 홍성호
홍의택 홍정표 홍종철 홍해남
황병원 황영옥 황윤일 황의서

해외 온누리교회

◈명예장로
마흥규 문태준 박동순 양원명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임대지
장옥룡 장은복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권준길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광수 리처드브릭스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유재건 이경희 임웅규 전태경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세일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서동희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오희경 유선애 윤은희
이미선 이민호 이신영 이수정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미라
조익현 조정훈 전병곤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재영 최훈희 홍용식
홍정표

◈반주자
김기아 김병성 김선경 김성규
김수현 김주인 김영아 김은경
김은섭 김은실 김은영 김인영
김지영 김지희 김지희 남민희
남궁진 노성희 박선희 박 숙
박영숙 박진용 방 휘 석지혜
이혜지 안은경 안은영 양지연
양혜선 오경진 유재경 유지영
윤정희 윤현진 이강석 이나래
이예진 정경미 정다혜 조영혜
조한나 최은미 최희정 한은미
황보승 배원신 강영은 황대준
허윤선

◈OMA담임목사
김형철 박재영 이정엽 이중재

◈담당목사
강부호 강은수 권혁빈 금경연
김대진 김영철 김철진 김철희
김태완 박재영 니시야마 신이치 마크최최
문봉주 박만규 박시형 서재범
서 현 유현목 이성권 이영선
이한규 이 훈 정장철 최승구
하카마타 미키

◈부목사
강일하 곽성환 권희경 금동섭
김미정 김인숙 김시연 김태환
노경호 문성일 박근택 박신웅
박수환 박우람 박주영 박택근
박찬민 방지남 백인호 서성광
심상현 손병호 여필종 유동우
유정훈 이경호 이세영 이일표
이재웅 이지훈 이종실 이한성
전상현 전홍렬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의환 진영국 최영진
최정무 허 민 홍동욱 홍성훈
홍세반 James Park Joe Lee Lee Yi
Sam An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전도사
강성근 강찬호 강창환 가바야마모
김산성 김성진 김성현 김인혜
김우신 김정욱 김지현 김진완
김현경 구혜선 노경호 레이첼백
마커스 문하나 민성민 박우람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향진
박현열 박현욱 배윤희 백일승
샘 리 서민표 서재욱 설산정
손미경 손주은 송준헌 신기원
안지현 양달샘 연공주 윤경선
이복음 이상수 이수연 이은희
이재경 이지나 이현우 윤성민
장세윤 장제홍 지자영 전희동
정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승철
정호석 조 단 최성배 최은정
최정수 최진숙 크레아시 데구 하보라
파트리 타케시 크리스틴 신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onathan Kim
Tommie Nobou

◈장로
김경덕 김재동 백 학 손진성
신중수 이덕한 이상덕 이만영
이문호 장우진 정길안 조록형
조성민 함선호 허규회 홍규석

◈명예장로
김용석

◈협동장로
강광일 강봉림 김경문 김동민
김연수 정두호 정석환 최승호
윤한돈 이재원 임헌식 최태영
김종수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용재 남명호
노용진 도승희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우아경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최승준 최정혜

결혼

9월 3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박종상, 김명숙(온누리교회 집사, 권사)의 아들
박정훈(온누리교회)
손태붕, 송재자의 딸 손서영(온누리교회)

9월 3일 토요일 오후 14:00 서빙고 본당
김성열, 이순이의 아들 김남훈(온누리교회)
이재근, 윤신순(부산드림호산나교회 집사, 집사)의 딸
이은해(온누리교회)

9월 3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이준용, 박현미(온누리교회 집사, 권사)의 아들
이창엽(온누리교회)
차익환, 박숙경(벧엘교회 집사, 집사)의 딸
차은빛(벧엘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윤리,국사) 및 악기(통기타) 후원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 의: 이주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기계목욕 및 안내
시간: 기계목욕(화요일 10:00~12:00), 안내(시간협의)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웃자, 웃자! '웃자단' 모집
대상: 만 60세 이상 열정있는 시니어
기간: 6월 ~ 11월
장소: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봉사 특성에 따라 자택가능)
내용: 1. 웃자캠페인(우울, 자살 예방 캠페인 진행)
2. 응답하라 폰팅(어르신 안부 전화 상담)
3. 앤딩다이어리(자서전 제작)
4. 내 마음의 거울(미술치료 통해 자기 이해, 정서안정)
문의: 이지은 사회복지사(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모집
대상: 손자녀에게 재밌게 책을 읽어주고 싶은 조부모
활동: 8/30~9/27 매주 화 15:00~16:30 교육진행 후 활동예정
문의: 차혜민 사회복지사(070-4340-2599)

재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신앙, 개인, 부부, 가족, 이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기시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암환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8/18(목) 강촌 홍성재 장로
8/19(금) 김포 노진환 집사 부친상, 최성아 집사 시부상 고 노대원
8/20(토) 서초A 선영미 집사 모친상 고 양옥금
8/21(주일) 서초B 임진욱 집사 부친상 고 임재철
8/21(주일) 김포 신귀순 집사 모친상, 조성수 집사 빙모상 고 최재옥
8/22(월) 양천 황병원 장로 부친상 고 황운락
8/22(월) 노원 오정희 집사 부군상 고 심원보
8/22(월) 가정사역 김진현 형제 모친상 고 신창실
8/23(화) 신용산 손창일 집사 부친상 고 손원일
8/24(수) 관악금천 서선미 자매 부친상 고 서정혁
8/25(목) 서초B공동체 이홍채 성도 부친상 고 이차우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반주자 공개오디션
지휘: 홍정표 장로
1차 서류접수: 9/2(금) 이력서, 이메일
2차 실기: 9/4 (주일) 14시 자유곡 1곡, 지휘 반주곡
연습: 토 14시~16시, 주일 14시~17시
자격: 초청연주, 정기연주회, 해외 아웃리치에 함께 하실 분
문의: 김희진(010-2561-8633)

1113호 20160828 게시판_925호 편성표 게시판(15면없음) 16. 8. 26. 오후 10:03 페이지 3

CGNTV 특집 다큐멘터리

아주 특별한 선물

방영 2016년 9월 4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1 군인이 된 선교사 자녀,
그리웠던 선교사 엄마와 함께한 특별한 휴가

#2 아파도 웃어야 했던 선교지...
늘 곁에 있어준 아내를 위한 특별한 프러포즈

선교사 가족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아주 특별한 선물



10월 2일은 CGNTV 정기후원의 날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KEB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 **ARS** 060-700-1660

다시보기 www.cgntv.net